

“성지순례 자기탐구의 길”

인도기행기 10여종 나와 ... 불자들에게 ‘인기 꾸준’

고은사인은 그의 인도순례기 <왕오천축국전>에서 “인도의 길은 나 자신의 길이었다”고 토로했다.

왜 인도일까. 극단적인 가난과 더러움, 1백가지 넘는 계급차별 등 부초리의 땅이 어떻게 ‘나의 길’이 되고 ‘내안에서 불꽃이 되는 것일까. 부처님의 땅 그 체취를 더듬고자 하는 불교인에게 인도는 거룩한 땅이며, 죽기 전에 한번은 밟아야 할 곳이다. 단연 성지순례 코스의 첫번째로 꼽힌다. 인도현지의 우기가 끝나면서 또다시 순례자의 행렬이 줄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성지순례 또한

사전준비가 부실하면 곁길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불서전문서점에 나와있는 인도 여행기만도 10여종에 이른다. 이들 책은 인도순례의 출중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불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

3개월 동안 인도에 머물며 불교성지를 중심으로 순례하고 있다.

법정스님은 이 책에서 “여행은 자기탐구의 길이라는 교훈을 인도여행에서 얻었다”라며 “고정관념의 늪을 털고 일어섬

(호진, 불교시대사) <인도와, 네팔의 성지순례>(정각, 불광출판부) <갈망여행>(동학사학승, 불지사) <인도의 여정>(정병조, 대원정사) 등으로 불어나 카필라산 녹야원 쿠시나गर 등 4성지 혹은 8성지를 순례 코스로 잡아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의 족적을 뒤쫓고 있다.

부처님 탄생에서 열반 죽적 뒤쫓아 문명에 찌든 현대인 ‘정신적 귀의처’

고 있다. 풍물사진을 곁들인 여행기만큼 읽는 재미도 크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은 법정스님의 <인도기행>(생터), 89년 11월부터

오르며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양식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에 불교성지를 중심으로 쓴 여행기는 <인도불적답사기

잡아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의 족적을 뒤쫓고 있다. <인도불적답사기>는 92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순례일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형식으로 서술, 역사적인 부처님, 인간적인 부처님을 찾는 구도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갈망여행>에서는 북쪽으로 20일 동안의 자세한 일정표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달 평균 1만5천7백권을 들여 2.9권의 책을 구입하고 있으며, 한 달에 2~3회 서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도서정보잡지 ‘뿌리와 날개’ 9월호에 발표된 ‘독서 라이프스타일’ 조사결과와 밝혀졌다. 이 조사는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 720명

“도서구입 한달 평균 2.9권”

독서스타일 조사 20대 독서량 가장 많아

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했다.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층은 20~25세(32.4%)이며, 30대도 줄어들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다(1.6%), 40대에 이르러 완만하게 상승하는(4.1%)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 종이로 인쇄된 책은 어떻게 변하리라고



천태지자대사 ‘대지관좌선법’ 김무득씨 최초완역 5권 출간

량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어려워 일본에서도 번역되지 않았다.

지관법은 인도의 전통적 수행법으로 석가세존에 의해 구체화된 수행방법이다. ‘지(止)’란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일체의 외부대상이나 내부의 상념에 흔들리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관(觀)’은 마음 속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서 대상의 실상을 그대로 꿰뚫어보는 것을 말한다.

번역을 마친 김무득씨는 “달마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지관선에 대한 이해없이 불가능하다”며 “이 책을 통해 달마선에 관한 한국불교 선학의 불국형이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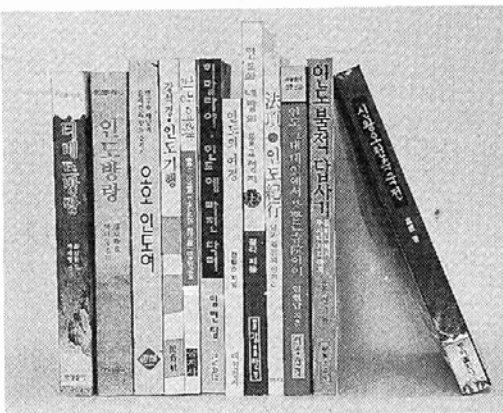
‘무엇하러들 오셨는가’ 돈연스님, 에세이 펴내

강원도 산골 사찰에서 농사 짓기와 수행에만 전념해오고 있는 돈연스님(전 경전연구부장)이 에세이집 <무엇하러들 오셨는가>를 미하사에서 펴냈다.

지난 93년 환속으로 화재를 일으켰던 돈연스님은 이 책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자신의 삶



정성운 기자



10여종에 이르는 인도여행기는 물질만능의 현대사회에 대한 문명비판서로도 읽힌다.

필요한 준비물을 신고 있어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임현담, 효형출판사) <인도기행>(강석경, 민음사) <오, 인도여>(윤재현, 서로출판사) <인도방랑>(후지하라, 한양출판)과 같은 책들은 인도를 불교성지로서보다는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인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 책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인도야말로 내 삶을 본질

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 박한 감동이 존재한다”며 “언젠가부터 인도를 꿈꾸어왔다”는 말로 인도와의 인연을 설명한다. 한편 인도여행기는 “나는 나의 욕심이 얼마나 문명에 제를 려있었나를 인도에 살면서 절감해 본다”는 고백처럼 물질만능의 현대사회에 대한 문명비판서이며 자기탐구의 구도기이기도 하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불교요가입문

‘불교요가입문’의 저자 이시마(飯島實貴)는 일본입정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 하드포드신학교에서 기독교를 수학했다. 1939년에 동경에서 일본군정부에 천황신앙의 위엄성을 간언하다가 마침내 미국으로 망명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불교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그간 동서고금의 종교에 정통하고 일반 심신수련에 정진하였으며 인도요가의 달인이기도 하다. 이 저서는 저자가 서문에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40년간의 대장경연구와 2만회의 수행수행, 1만회의 설법체계의 산물이 라고 한다.

이나 그 형식주의를 미혹하게 생각하다가 출가 후에는 당시로서는 신종교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경을 중심한 사상을 섭렵하고 겸하여 이미 5백년의 역사를 가진 주로 육체적 수련으로써 해탈을 얻으려는 요가도(道)까지 통달했다고 한다. 따라서 고행무익설은 고행졸업설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태자시대에 이미 석가 자신이 관법의 달인이었고 그의 장사 때에 그의 관을 멘 것이 또한 권사들이었다는 설과 서기 5백년경 인도에서



정재각 (전 정신문화연구원장)

여기에 이 저술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심신건강을 본래 진정한 불교를 통하여 더욱하고 그러한 단련을 거듭하여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평이하고 접근하기 쉬운 설명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일반종교는 현세적 인간존재의 본체를 분석하는 안목이 깊지

수행과 심신의학 상관관계 다뤄 불경연구·체험 토대 단련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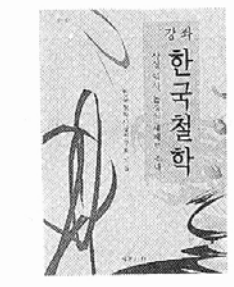
못하다고 본다. 이 세상에서 신체만의 인간이나 정신만의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인 이상 신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일반종교가는 흔히 마음을 유체화하고는 전연 별개로 존재하는것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현세인간이 심신일체의 존재인데도 종교가 마음만의 병을 치료하고, 의학 특히 서양의학이 신체만의 병을 다룬다면 인간의 완전한 건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뻔한 일이다. 요즈음 비로소 심신의학이라고 하여 양자의 관계에 주목하는 의학이 출현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주류는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불교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태자로서 궁정에 있을 때는 주로 전설적 교양으로써 배 다경계통의 브라만교를 익혔

불교전도를 위하여 중국에 갈 때에 대사가 현존하는 소림사에 머물면서 좌선행과 동시에 역군행이라는 일종의 요가적인 권법을 전수하였다는 전설은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요가가 정신과 신체의 양향(兩向)에서 해석되고 신체의 진정한 건강을 이룩하기 위하여 요가를 훈련하고 그럼으로써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은 오늘날 불교의 참선에서도 면면히 남아 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좌법과 명상이 강조되고 있으나 올바른 좌법을 익히기 위하여서는 요가적인 도인(導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불교가 시초부터 심신일체의 경지를 가지고 수련해온 전통은 심신의학이라는 과학적 의견에서도 가장 선각적 종교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강좌한국철학 철학사양연구회 지음

지금까지의 한국철학사 연구성과물인 <조선철학사>(북한에서 발행)나 한국철학회에서 펴낸 <한국철학사>는 유물론적 도식에 얽매어 있거나, 근대 이후 현대까지의 시기는 전혀 언급하지 못한 맹점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철학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의 발간은 한국철학계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교선 유불·돈점논쟁 심도있게 분석

<강좌 한국철학>은 남북을 통틀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철학사를 서술한 최초의 책. 한국철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단순한 철학사 서술만이 그치지 않고 ‘사상별로 본 한국철학’ ‘시대별로 본 한국철학’ ‘논쟁별로 본 한국철학’

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논쟁별로 본 한국철학’에서는 교선논쟁 유불논쟁 돈점논쟁 등 한국철학사의 중요한 논쟁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평가를 시도했다. <예문서원,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볼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소설 선	고 은	창작과비평사
2	달미의 제자들	고 우영	불지사
3	영가친환법어	석성우	토방
4	하산	홍 주	불지사
5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자 우	민알
6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임현담	효형
7	삼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8	절로가는 마음	신영훈	책안드는 집
9	보문종잡화	방령	관음
10	한국불교조각의 효를	김우방	대원사

구입문의: (02)737-0695

18일부터 독서주간

도서교환등 행사다채

9월 첫째주는 독서주간. 국민독서진흥회를 비롯한 출판문화단체는 한달동안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주요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명/기간·장소/주관기관) △ 알뜰도서교환시장 /9.1~30/새마을문고중앙회 △ 청소년권장도서목록 배포

/9.19~10.14·서울 용산구민회관 등 전국 14곳/새마을문고중앙회 △ 도서관문화학교 /9.1~10.24/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 어린이 독서교실 /9.1~24/부산 명당도서관 △ 어린이 독서대학/9.20~22/영등포도서관 △ 1일 독서교실 /9.21/춘천시립도서관 △ 알뜰도서교환전/9.23~24/인천 부평도서관 △ 고전읽기 백일장 대회/24일 오후1시·서울재동국/국립민중도서관/민중회.

물어뜯고, 법당가득

책방 여시아문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독자 추천서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경희문
공평빌딩
종로3가

종로구
수

현대불교신문사
민중당 조계사
인석

안국동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